

유명 식품에 담긴 '전남의 맛'



보성 녹차



나주 배



완도 다시마



무안 양파

전남지역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들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대기업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 5개의 FTA를 통해 수입된 전 세계 농산품과의 경쟁을 이겨내면서 전남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따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성 녹차로 키운 녹차는 글로벌 브랜드 맥도날드가 선택했다. 맥도날드는 최근 보성 녹차잎을 사료로 먹인 '녹돈'을 '한국의 맛 프로젝트'(Taste of Korea) 두 번째 맛으로 결정했다. 맥도날드 매장이 한 곳도 없는 보성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녹차를 활용한 햄버거를 기획 상품으로 내놓을 만큼 보성 녹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전남도와 보성지역 농민들 생각이다.

맥도날드는 이같은 프로젝트에 따라 전남도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정 보성지역에서 키운 녹차잎을 따서 키워낸 국내산 돼지(140t)로 만든 패티(113g)를 사용한 '보성녹돈버거'를 출시, 다음 달 초까지 판매중이다. 맥도날드측은 이번 프로젝트에 보성녹돈 140t을 사용한다. 보성 녹차잎은 한 해 사료로 14t 가량 사용되고 있다. 맥도날드는 판매기간 내 2초에 1개꼴로 팔린 1호 한국의 맛 프로젝트 버거인 '장뇌 갈릭 버거'보다 많이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보성녹돈버거' 출시를 기념, 14일 보성 차문화공원에 '일일 매장'을 열고 녹돈버거 시식 기회도 마련했다.

전통식품 전문업체 ㈜비락에서도 익숙한 보성

대기업·프랜차이즈 업체 전남 농산물로 소비자 공략

맥도날드 '보성녹돈버거' 출시
비락 '유기농 사과 홍차' 선보여
던킨, 나주배 활용 음료 개발
배스킨라빈스, 해남고구마로
아이스크림 상품 내놓아
파리바게뜨 '무안 양파빵' 인기

녹차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비락의 '유기농 사과홍차'는 전남도농업기술원과 보성군, 보성차생산자조합 간 협약에 따라 보성 녹차를 넣어 만든 음료다. 보성에서 재배한 유기농 사과 150kg을 사용, 110ml들이 팩 5만개를 만들었다. 사과 홍차를 만드는 데 보성차생산자조합에 속한 600여곳의 보성 차 재배 농가가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 브랜드 던킨도넛과 배스킨라빈스에서도 익숙한 고향의 맛을 찾을 수 있다.

던킨과 배스킨라빈스가 지난달부터 내놓은 음

료 '나주 배 콜라타', '나주 배 블라스트', 아이스크림 '나주 배 소르베'는 모두 명품 나주 배를 활용한 상품이다. 나주배원에농협이 독점 납품한 나주 배 27.3t으로 만들어졌다. 글로벌 브랜드가 나주 배를 선택하면서 재배 농가들 사이에서는 나주 배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던킨과 배스킨라빈스는 판매량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년 여름 기획 상품으로 내놓는 방향도 검토중이다.

앞서, 배스킨라빈스는 지난해 9월 해남 고구마(18t)로 '치즈 고구마구마' 아이스크림과 '치즈 고구마 케이크구마' 등을 내놓기도 했고 지난 4월에는 무안 양파빵이 파리바게뜨에서 나왔다.

농심의 라면 '너구리'에 빠지지 않는 다시마는 완도산이다. 지난 1982년부터 완도산 다시마를 넣어서 만들어졌다. 작황이 좋지 못해 가격이 전년보다 40% 가량 뛰 올랐는데 농심은 연 평균 구매량(400t)보다 10% 더 사들일 계획을 세울 정도로 완도산 다시마를 쟁긴다.

전남산 농산물이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선택을 받게 된 데는 수입산 농산물과의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차별화된 맛을 유지한 지역 농민들의 열정과 전남도·보성·나주·무안 등 해당 자치단체들의 적극적 판로 개척, 홍보가 한몫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로컬푸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공급하도록 지역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판로 다양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8개월만에...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 14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떠나려는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2년 4개월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무안국제공항은 이날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몽골 등 4개 항공사 5개 노선, 주 28편의 국제선을 다시 운항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 출시

광고비 없고 중개료도 저렴
소비자·소상공인 모두 혜택

전남도가 14일 도내 소상공인, 소비자를 위한 전남도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떡깨비(www.mukkebi.com)'를 본격 출시했다.

이날 전남도는 목포역 광장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공공배달앱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배달앱 성공기원 도민 영상메시지, 개회사, 업무협약, 배달주문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출시를 기념해 1만원 할인쿠폰(선착순 7000명), 매주 토요일 3000원 할인 쿠폰(선착순 300명), 더블 할인(가맹점 할인+도 지원) 최대 4000원, 1000원 포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의 이벤트를 마련했다.

전남 공공배달앱은 민간업체 ㈜떡깨비에서 앱을 개발·운영하고,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앱 이용 소비자는 쿠폰, 이벤트 등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에 전남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침체한 상권 회복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해 현재 3000곳을 확보했고, 올해 말까지 가맹점 6000곳을 모집해 음식 배달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전남 공공배달앱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함께 착한소비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전남 공공배달앱'이나 '떡깨비'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은 후 사용하면 된다.

/윤현식 기자 chadol@kwangju.co.kr

저신용 청년 고금리 채무이자 최대 50% 감면

신복위 특례 신속채무조정 신설

정부가 14일 개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및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책 외에도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

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복위의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기간 30일 이하 차주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프로그램은 가장 3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가장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는 일반 프로그램과 기본 지원 내용은 동일하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

해 약정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는 이자 감면 지원을 추가했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 최장 3년간의 유예기간 적용이자를 연 3.25%로 고정했다. 일반 프로그램이 유예기간 약정이자(15% 상한)를 적용하는 것과 대비한다. 이 밖에 신청비 5만원도 면제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이다. 금융위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시행으로 청년층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